01 여는 그림

02 책을 열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확대하자 _ 문홍주

04 특집 I
효순·미선 3주기

3주기 맞는 여중생 사건의 의미 _ 김종일
'의정부 지방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_ 고영대
SOFA 개선, 얼마나 바뀌었을까? _ 고유경
포토에세이

26 특집 II
NPT 7차 평가회의 대응

NPT 7차 평가회의 대응-뉴욕 일기 _ 박석분
대표단 소감 _ 변연식, 임종철, 유홍

36 시론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의 승리를 위해 _유영재

40 현장
무너져 내린 갈매기의 섬, 직도를 아십니까? _ 조광수

44 인물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겠습니다.'이수정' _ 장윤지

47 참가기
주일미군기지 건설 반대 현장 '헤노코' 방문기_ 장도정

50 포토뉴스
평택투쟁 승리를 위한 평택주민 & 평통사 체육대회

52 기고
반환 미군기지 내 문화재 상흔만 남아_ 박신용철

54 평화군축상식

표지사진 : 미군장갑차에 깔려 억울하게 죽어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며 심은 나무와 팻말은 세월의 흔적만큼 빛이 바랬다. 3주기를 맞은 오늘, 두 소녀의 한을 풀기 위한 진상규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만인의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이 되길 바라며...

글 _ 김현진 사진 _ 최문희

국방부는 미국의 하수인?

지난 6월 2일, '직도 폭격장 폐쇄와 군산 미군기지 확장 저지 전북대책위'는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방부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매향리 국제폭격장 직도 이전 사용에 대해 주민들의 고통어린 호소는 아랑곳 않은 채 미국의 하수인 노릇만 자처했기 때문이죠. 주민들은 이른 새벽 관광버스를 타고 상경하여 국방부장관의 공개사과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답대신 돌아온 건 전경들의 몽둥이와 방패뿐이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전경들에 의해 고착되어 있던 주민들은 항의서한을 국방부 담장 안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글 김현진·사진 최문희

| 책을 열며 |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확대하자

공동대표 문 홍 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 명실상부하게 평화통일운동을 대표하는 단체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먼저 오늘의 평통사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하신 문규현, 홍근수 상임대표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동대표님과 운영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 특별히 그동안 열심히 활동에 동참해주신 회원님들을 비롯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 온몸을 던져 평통사의 어려운 살림을 꾸려 오신 상근직원님들의 공이 클 것이다.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를 드린다.

필자가 평통사와 함께 한 날도 어느덧 10여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을 거듭해 오는 동안 아무런 도움도 드리지 못했고 조그마한 힘도 보태지도 못한 것 같아 그저 부끄럽고 송구스럽기만 하다. 돌이켜 보건데 그간 문예위원장으로서의 소임도 다하지 못해 늘 죄스러운 맘뿐이었는데, 올해에는 공동대표까지 맡았으니 너무 당황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나만 편하자고 열심히 일하시는 동지들을 향해 변명이든 고사든 무슨 말을 한다는 것이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평화·통일 운동에 동참한다는 것은 적어도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평화·통일 운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와 통일에 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모임을 만들어 문화적인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길 떠나는 책'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감명 깊게 읽고 난 책 중에서 책꽂이에 꽂혀 잠자고 있는 책들을 모아 이 운동의 취지를 설명한 스티커를 붙이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정한 책들과 함께 길을 떠나보내는 운동이다. 즉 책을 돌려 읽게 하는 것이다. 다 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 돌려 읽게 함으로 책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사람들의 손을 빌리긴 하지만 책을 통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게 하는 방식인 것이다.

떠나는 책' 프로그램은 그동안 우리 평통사가 진행해 온 '무기장난감 바꿔주기' 프로그램과 병행해 나갈 수 있다. '무기장난감 바꿔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무기장난감 또는 성인들의 도박놀이감(화투, 카드 등)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자카드(가족놀이카드, 추후 통일카드와 평화카드를 개발할 예정)로 교환해준다. 그리고 동요 부르기를 통하여 동심과 평화, 동심의 세계에 비친 평화와 통일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게 한다던지, 그 외에 연극 및 영화관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하여 평화·통일문제에 접근해보려는 시도를 해야겠다.

이런 활동들이 우리 평통사 회원들의 눈높이로 보면 보잘 것 없는 낮은 수단일 수도 있겠지

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통사 회원 수준에 이르려면 너무도 격차가 크다는 사실이다. 평화·통일의 전위대 역할로서 평통사가 있다면,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할 평화·통일의 2중대, 즉 중간과 후미를 채워줄 지지자나 동지들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더디긴 하겠지만 함께 가야할 미래의 평통사 지지자나 동지를 규합해 나가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통사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더 많은 동참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다.

효순이, 미선이 촛불시위는 끝나지 않았다
- 효순이, 미선이 3주기를 추모하며

전 여중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현 평통사 사무처장 김 종 일

2002년 6월 13일 - 14살 소녀들의 꿈이 참혹하게 짓이겨지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온 나라가 월드컵에 환호하고 들떠있던 사이,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미군장갑차에 의해서 두 여중생이 참혹하게 짓이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 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 2리 56번 지방도로에서 친구들과 생일잔치를 벌이기 위해 갓길을 걸어가던 조양중학교 2학년 신효순, 심미선 양이 미 2사단 44공병대(캠프 하우즈 소속) 미군 장갑차(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 깔려 그 자리에서 숨진 것이다.

이날 사고는 ATT(대대 전투력 측정) 훈련을 위해 파주에서 양주군 덕도리 소재 무건리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차량 행렬 중, 세 번째 대형 궤도 장갑차(AVLM)가 맞은편에서 오던 다른 브래들리 탱크와 무리하게 교차 운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편도 1차선의 폭이 3.3m에 불과하여 폭이 3.67m나 되는 궤도장갑차와 브래들리 장갑차가 교차 진행하기 위해서는 갓길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도로였다.

처음 사고현장에 도착했던 심미선 양의 이모부 홍기식씨는 마을에 수소문해서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형체가 완전히 뭉개져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14살 소녀들의 꿈이 54톤이나 되는 미군 궤도장갑차의 캐터필러에 의해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이다.

2002년 6월 13일 이후 - 주한미군의 오만, 그리고 계속되는 거짓말

미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언했던 그들의 처음 주장과는 달리 진상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 사건 직후 미군은 최초 사고 현장 목격자(홍기식씨)의 접근을 막은 데 이어 병원 구급차 기사의 사진촬영을 방해하였고, 심지어 한국 경찰의 미군 운전병에 대한 초동수사조차 가로막았다.

사고가 나자 미 2사단장이 사과를 표명하였고 주한 미 대사도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군의 사과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고 반미투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 2사단 측은 6월 15일 두 여중생 장례 후 사단장과의 면담약속 파기, 6월 19일 한미합동조사결과 브리핑에서 "미군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짓 발표, 대변인 베이커 소령이 인터뷰에서 밝힌 "현장조사 결과 미군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사고의 원인제공은 두 여중생에게 있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으로 일관하였다. 만약 미국에서 미군이 이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사자는 물론 군 책임자도 엄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미군 당국에게 유족, 시민사회단체, 언론, 미군, 한국경찰이 참여하고 사고 궤도차량을 동원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지만 미군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것만 보더라도 미군이 진상규명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다.

미군 당국은 사고 직후 "훈련이 있을 경우 사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겠다", "부교를

궤도차량이 아닌 트레일러로 운반하겠다"는 따위의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 또한 한국민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눈속임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여중생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02년 9월 16일 효순이, 미선이가 죽은 사고현장에서 불과 4㎞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주한미군 훈련차량에 의해 또 다시 박승주씨(당시 35세)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2002년 7월 10일 - 최초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요구를 미군이 거부하다.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 측은 한국 국방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검찰 등에 한국민의 반미투쟁을 무마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다. 이 역시 용서할 수 없는 주권침해이다.
이러한 미군 당국의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처사에 분노한 유족과 여중생 범대위는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계속 촉구하였다. 공무 중 사건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상대 국가에서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을 하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SOFA에 규정되어 있다. 형사재판관할권 이양이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여중생 사건 발생 이후 거짓말로 일관해 왔던 미군 당국의 태도로 볼 때 한국 당국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때에야 비로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법무부가 마지못해 2002년 7월 10일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미 측에 요청하자 이에 당황한 미군 당국은 또 다시 한미연합사령관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사과 입장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사과조차 기만적인 것임이 곧 드러났다. 한미연합사령관의 사과 직후 미군 당국은 우리에게 형사재판관할권을 이양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가해 미군 2명을 미국 군사법원에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군 당국은 한국의 국방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검찰, 경찰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연일 개최하면서 여중생 사건 무마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방침에 따라 2002년 8월 5일 한국 검찰(의정부 지방검찰청)은 사건의 진상을 왜곡 축소하여 발표하였고 이어 8월 7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거부를 공식 발표하였다.

사건의 진실은? -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미군 당국은 이제까지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거나 사고는 불가피했다고 강변해왔다. 그러나 미군은 도로 폭보다 넓은 궤도차량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의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또한 차폭이 도로 폭보다 넓어 교차통행하면 안 되는 도로를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교차통행 함으로써 자신들이 작성한 군 작전교범(FM : Field Manual)마저 위반했다.
그들 주장대로 시야제한이 큰 차량이라면 더욱 확실한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하다. 호위차량, 헌병 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선탑자가 운전자와의 교신을 통해 수시로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마을 주민에게 훈련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주요 통행로에 그라운드 가이드를 배치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처럼 통행해서는 안 되는 도로를 그것도 아무런 안전조치도 없이 통행했을 뿐만 아니라, 궤도장갑차 두 대의 폭을 합하면 갓길까지 완전히 점령할 수 밖에 없음에도 무리하게 장갑차끼리의 교차통행을 강행한 것은 미군이 한국인의 안전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한국군의 경우 사고가 나면 지휘 책임자가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만, 미군의 경우 이른바 '군기'가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것이 기갑병이나 카투사 출신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건은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아랑곳하지 않는 미군이 자기들 멋대로 군사훈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는 2005년 5월 27일 '여중생 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정부 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여러 관련기관에서 확보한 미 2사단 CID 수사자료 등 수많은 자료에 의해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문제의 본질은? -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근본 원인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60년이 되었다. 그동안 미군은 약 20만 건에 이르는 크고 작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군 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온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근본원인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SOFA는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불평등성을 상징하고 있다. 이런 불평등한 조약들로 인해 미군은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려왔고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인명경시 풍조까지 겹치면서 한국은 미군의 무법천지가 되었다.
여기에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한 한국의 정치권, 검찰, 경찰, 군대, 언론 등의 친미사대주의적 행태가 이들의 범죄를 더욱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애꿎은 우리 국민만 미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하소연할 데 없는 상태가 60년간이나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결코 단순사고이거나 피해자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여중생 범대위가 부시 대통령의 공개 사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 사고부대 폐쇄, 형사재판관할권 이양, SOFA 전면개정 등의 요구를 내걸고 여중생 투쟁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온 것은 지극히 정당했다.

만 2년이나 전개된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 -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자리 잡다
한국민은 여중생 사건이 일어난 지 13일 만인 2002년 6월 26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심미선, 신효순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 범대위)를 결성하여 투쟁해왔다. 여중생 범대위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을 비롯하여 교사, 대학생, 청소년, 시민사회운동, 종교인, 여성 등 11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여중생 범대위가 주도하여 8차례의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약 500여회 연인원 수 백만 명이 참가한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를 전개해왔다. 보수적인 언론과 방송에서조차 여중생 촛불시위가 평화시위로 정착되었고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이구동성으로 보도한 것만 보아도 촛불시위가 반미투쟁의 상징이 되었음을 잘 알 수가 있다. 심지어 2002년 12월 31일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의 경우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80여 곳 나라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세계적 차원에서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가 반미투쟁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자통협에서 제작한 두 여중생 추모 플래시의 경우 조회수가 100만을 넘을 정도로 여중생 사건 해결을 위한 투쟁은 범국민적인 지지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같은 한국민의 투쟁에 밀려 한국 법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미군 당국에 형사재판관할권을

우리 정부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였다. 물론 미군 당국이 법무부 요청을 거절하긴 했으나 형사재판관할권 이양요구를 한국 법무부가 미군 당국에게 정식으로 요구하도록 강제한 것은 여중생 투쟁의 대중적 위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5년 5월 27일 이후
- 반미투쟁의 봉화를 다시 올리자
2005년 2월 17일 대법원 재판부는 필자에게 여중생 추모 촛불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 한미관계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고 민족자주를 실현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 뿐이라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대법원 재판부의 유죄 확정판결은 범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미의식을 어떻게든 차단해보려는 한미당국의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2003년 초부터 시작된 여중생 사건 수사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재판이 드디어 2005년 5월 27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우리가 승소하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우리는 의정부 지방검찰청 등 관련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 일체를 넘겨받았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미군 당국과 한국 검찰이 그동안 여중생 사건을 왜곡 축소 은폐해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미군 당국은 그동안 일관되게 우리 국민을 속여 왔고 한국 검찰은 살인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 당국보다 한술 더 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우리 국민을 기만해왔다. 온 국민이 가슴을 치며 통탄할 일이 버젓이 자행돼 왔던 것이다.
여중생 사건의 진상이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무죄판결을 받은 살인미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 지 검토하고 여타 관련자들의 기소가 가능한 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미군 당국의 조치를 촉구하고 아울러 불평등한 SOFA의 전면개정을 한미당국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여중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우리 현실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청산되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같은 불평등한 법, 제도의 개폐뿐 아니라 전시 작전통제권의 즉각 환수,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른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화 저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등 불평등한 정치군사적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아래로 흐르는 물만이 강도 이루고 끝내는 바다를 이루는 것’이라는 역사적 진리를 거울삼아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뒤따른다 해도 쉼 없이 우리 국민, 칠천만 겨레와 더불어 끊임없이 반미투쟁을 전개함으로써 굴욕적 한미관계 청산에 평통사 회원들이 앞장서자.

두 여중생 압살 사건(2002. 6. 13)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1)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부설) 상임연구위원 고 영 대

1. 수사기록 검토 결과의 핵심 내용

● 지난 주한미군 조사 결과(2002. 6. 19)와 한국 검찰 수사 결과(2002. 8. 5)는 사고 장갑차 운전병은 오른 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고,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 장애로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 기록과 미군 CID 수사자료,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사고 장갑차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 특히 의정부 지방 검찰청이 2002년 9월 3일 자로 미 2사단에 보낸 수사결과 자료-‘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 는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이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던 근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입증하고 있다.
● 또한 미군 CID 수사자료,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는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운전병은 다른 차량이나 관제병 등과의 통신을 통해서도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 아울러 수사기록 자료는 운전병 해치와 관제병 해치 사이의 거리가 33인치(83.82cm)에 불과하여 관제병은 통신수단이 아닌 팔 등을 이용해서도 운전병에게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 위의 사실은 “통신 장비 고장으로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운전병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니노의 주장과 “사고 전에 관제병과 계속 통신했다”는 워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무죄를 선고한 미군 군사법정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 한편 수사기록 자료들은 사고 장갑차가 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고속으로 질주해 오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과 교행하였다는 사실과 교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사고차량 행렬의 선도 험비 차량에 타고 있던 중대장이 앞서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사고차량에 알리지도 않는 등의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미군 지휘체계상에 중대한 과실들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2.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문건에 토대한 미 2사단과 의정부 지방 검찰청의 수사 결과의 허구성 입증

3. ‘미군 CID 수사자료 및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에 토대한 미 2사단과 의정부 지방 검찰청의 수사 결과의 허구성 입증

4.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음을 입증해주는 추가 수사 및 진술 내용

(1) 워커와 니노는 출발 직전 '통신의 정상 작동'을 똑같이 진술하고 있으며, 정비병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 "출발 이전에 최소한 세 번 통신장비를 점검해 내부 통신을 교신했고 외부통신도 점검했다. 모든 것은 좋았고 잘 작동했다."(6. 19 워커의 진술)
- "우리는 통신장비를 점검하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2002년 6월 13일 10시경 임무 수행을 위해 집결지를 떠났다."(6. 19 니노의 진술)
- "나는 그들이 이동하기 전에 통신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갔다. 이후 다른 차량 무전기와 맞춰 봤는데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 (6. 19 통신정비병 듀란의 진술)
- "우리는 PMCS(사전 통신장비 정비)를 하루에 두 번, 이동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집결지에 도착해서 한 번 한다."(6. 19 마이클 머레이의 진술)

(2) '사고 순간만 통신이 안 됐다'는 워커와 니노의 진술은 '통신 장애'가 책임 회피를 위한 구실임을 보여준다.
- "운전하는 동안 무선이나 인터컴으로 통신 문제를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그 언덕을 오를 때뿐이었다."라고 대답(7. 2 워커의 진술)
- "타이거 2를 향해 운전하기 시작했을 때 워커와 줄곧 통신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할 때 하였다."(7. 2 니노의 진술)

(3) 한국 검찰은 통신 장애가 있었다는 미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도 이를 은폐하였다.
- "사고 부교장갑차를 정비한 정비병 듀란 에이블을 재차(7. 27 및 8. 1) 소환하여 조사하였는바, …사고 부교장갑차가 사고 전에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8. 1 노시탁 검사보의 수사보고)

(4) 통신을 듣지 못했다는 워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관제병 니노의 진술
- "나는 그들(두 여학생)을 보자마자… 조심하라고 말하였다. 그(워커)는 대답이 없었지만 보통은 끄덕이거나 다른 것을 했다. 이번에 그는 어떤 움직임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게 했다."(6. 19 니노의 진술)
- "워커가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 니노는 "바로 여중생이 걷고 있다고 말했을 때였다. 보통 때 그는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다른 신호를 보냈다. 워커는 그 전에, 상황보고 전에는 내 소리를 잘 들었을 것이다."(7. 2 니노의 진술)

(5) 중대 무선 통신 상에서 두 여중생에 관한 통신이 계속 오고가고 있었기 때문에 워커가 못 들었다는 것 역시 변명에 불과함
- "메이슨은 무전으로 누군가 보행자가 있음을 이야기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고 진술함. (6. 13 미군 CID의 수사보고서)
- "클리백과 워맥은 메이슨을 인터뷰했다. 그는 호송차량이 두 여중생을 지나가자 보행자들에 관한 경고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메이슨은 더 나아가 보행자 경고를 한 중대 무선통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6. 20 미군 CID의 수사보고서)

(6) 관제병이 팔만 뻗어도 운전병에게 경고 신호를 보낼 수 있으므로 통신 장애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 운전병 해치와 관제병 해치와의 거리는 83.82cm(6. 20 미군 CID의 수사보고서)에 불과. 따라서 관제병은 팔을 뻗어 운전병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었음.
- "관제병 자리에서 운전병에게 손을 뻗어 알리는 것이 가능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하지만 운전병의 주의력을 방해하고 핸들 조작이 민감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대답.(6. 19 니노의 진술)

(7) 마주오던 브래들리 탑승자들이 보낸 경고 신호를 못 봤다는 워커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 "나는 브래들리의 옆면과 운전병, 장갑차의 코너를 더 주시하느라고 운전병과 관제병, 중대장이 보낸 정지 신호를 못 봤다."(6. 19 워커의 진술)는 사고 장갑차 운전병의 주장은 거짓 진술의 전형이다. 폭이 3.23m인 브래들리 장갑차의 운전석은 볼 수 있었으면서도 불과 1m 이내(브래들리 장갑차보다 폭이 약 30cm 가량 큰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 해치와 관제병 해치 사이의 거리가 83.82cm라는 사실에 비추어)에 있었을 브래들리의 관제병이나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있었던 중대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에 반하는 주장이다. 이러한 운전병의 진술은 오히려 운전병뿐만 아니라 함께 관제병과 중대장을 보았다는 주장으로 된다.
- "차량을 멈추게 하려고 운전석의 해치 밖으로 나의 손을 들었다."(6. 13 맞은편 장갑차 운전병 루시 카일의 진술)

(8) 통신도 무시하고 맞은 편 장갑차 탑승자의 경고도 무시한 것은 두 여중생들이 알아서 비키겠거니 하는 안이한 사고 때문이거나 아니면 교행을 위해 칠 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운행을 했음을 말해 준다.
- "(여중생이) 그들 뒤로 시끄러운 차량이 지나가면 움직일 것으로 생각했다"(6. 19 니노의 진술)
- "나는 맞은편에서 오는 버스, 트럭 등 몇 대의 차를 피하기 위해 AVLM을 갓길 쪽으로 운행했다. …브래들리를 앞질러 오던 민간차량과 뒤의 브래들리 사이에 간격이 있었다. 그래서 차를 중앙선 쪽으로 조금 몰았지만 곧 장갑차를 보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직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갓길 쪽으로 차량을 몰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 중앙과 브래들리를 주시했다"(6. 19 워커의 진술)

5. 미군 및 한국 검찰의 수사 자료는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과 책임이 주한미군 지휘체계에 있음을 밝혀준다.

(1)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법을 무시하는 미군의 횡포와 불법이 증언되고 있다.
- "브래들리 장갑차와 전차가 차량 소통이 많은 도로(main strip)를 오르내리는 것은 사고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6. 19 마이클 머레이의 진술)
- "부대가 위치한 파주에서 훈련장까지 가려면 양주군 지방도로가 지나치게 좁기 때문에

도로 폭이 넓은 문산 우회도로를 택하도록 돼있다.”(11. 22 레이 상병의 ‘성조지’ 기고)
- “출발하기 전 안전교육이 없었다. 나는 마을을 지나거나 브래들리와 마주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주거지를 통과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6. 19 라이크 제이콥의 진술)
- 도로 폭(3.3m)보다 차폭(3.67m)이 더 큰 차량을 운행시킨 것은 한국의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위반임.

(2) 군 작전 시 안전 규정을 담은 작전교범(FM)조차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만성화된 규율 위반과 위법성이 밝혀지고 있다.
- “AVLM이 호송대에 끼는 것이 보통인가?”라는 미군 수사관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고 대답.(6. 19 마이클 머레이의 진술)
- “우리는 위험평가나 다른 호송대 주파수, 출발시간, 종료시간에 관해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 또 행군용 지도(行軍要圖)도 없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6. 19 니노의 진술)
- “폭스는 집결지를 떠나기 전 호송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6. 20 미군 CID의 수사 보고서)
- “당신의 지휘계통에서 운전자와 관제병 사이에 통신이 안 될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니노는“아니오. 하지만 이것은 PMCS 매뉴얼에 적혀 있다.”고 대답.(6. 13 니노의 진술)

(3) 안전에 관한 정당한 건의조차 묵살하는 미군지휘관의 독단이 밝혀지고 있다.
- “중대장에게 무한궤도 차량들을 트레일러로 옮길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1. 22 그렌디네티 하사의 미 군사재판 증언)
- “AVLM을 훈련지로 이동시킬 때마다 HET(중장비 수송차량)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왜냐하면 이 궤도차량은 위험하고 자주 이동하면 고장도 잘 나기 때문이다.“(7. 2 워커의 진술)

(4) 사고 장갑차 호송 대열의 메이슨 중대장과 반대편 브래들리 장갑차 호송 대열의 리벳 중대장의 범죄적 직무 유기가 지적되고 있다.
- “나는 메이슨(중대장)이 보행자에 대해 경고한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6. 19 크리스토퍼 폭스의 진술)
- “여중생들이 훈련대열이 통과하는 협소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면 뒤따라오는 장갑차 대열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알려 주어 불행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한국 검찰의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
- 리벳 중대장은 브래들리 장갑차 호송 대열을 사고 장갑차 호송 대열과 교행시키고, 또한 50~60km의 고속으로 운행(현지 목격자 증언)하여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였다.

(5) 그런데도 한국 검찰은 미 2사단장에 보낸 2002년 9월 3일자 의견서에서는 메이슨 중대장의 혐의 부분(부주의)을 적시하고도, 11월 5일자 의견서에서는 이를 삭제함으로써 그의 지휘체계상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었다.
- 이는 메이슨 대위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내부 징계만 받도록 함으로써 두 여중생 사건에서 나타난 지휘체계상의 책임을 은폐시키려는 주한미군의 의도에 한국 검찰이 협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수사기록으로 추정해 본 사건의 진상

관제병과 운전병,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좁은 도로에서 무리한 교행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고차량 AVLM의 운전병 워커는 우로 굽은 길을 돌기 전이나 돌고 난 뒤 여중생들이 30m 전방에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한국 검찰의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
▶ AVLM이 우로 돌아 직진하자마자 한국인 버스와 터미네이터 트럭이 추월하였다.(6. 19 니노의 진술).
▶ 중앙선으로 차를 몰던 워커는 버스가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저 바보 같은 자식 봤나"하고 욕을 하면서 오른 쪽 갓길로 차를 몰았다.
▶ 워커는 버스가 지나가자 다시 중앙선으로 들어갔다가 선두 브래들리 장갑차가 맞은편에서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오른쪽 갓길로 급하게 꺾었다(6. 19 워커의 진술). 이 때 사고차량과 두 여중생의 거리는 약 10~15m(진술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정도였다(6. 19 라이크 제이콥의 진술).
▶ 선두 브래들리는 AVLM 운전병에게 '멈추라'는 수신호를 보내면서 교행하고 이어 곧바로 또 한 대의 브래들리와 교행하면서(6. 19 니노의 진술) AVLM은 두 여중생을 치게 된다.

위의 진술을 정리하면 사고 장갑차는(직선 도로로 접어든 다음 약 35m 전방의 사고 지점까지 약 8초 동안) 맞은편 버스를 피하기 위해 갓길로 빠졌다가 다시 중앙선 쪽으로 들어온 다음 다시 선도 브래들리 장갑차를 피하기 위해 흙 갓길로 빠져 두 여중생을 향해 일직선상으로 운행하다가 두 번째 브래들리 장갑차와 교행하면서 두 여중생을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고 장갑차는 왜 이런 무리한 곡예 운전을 했으며, 두 여중생 앞에서 멈췄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왜 멈추지 않았을까?
당시 사고 장갑차 대열(공격 쪽, 메이슨 중대장 호송)이나 브래들리 장갑차 대열(방어 쪽, 리벳 중대장 호송)은 평가 훈련 중으로, 모두 시간에 쫓겨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브래들리 장갑차의 속도는, 당시 목격자(현지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무려 50~60km였다. 이에 미 CID 수사관도 사고 장갑차 중대장에게 브래들리 장갑차의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었는지를 묻고 있다. 사고 장갑차도 브래들리 장갑차 중대장 리벳 소령이 "AVLM이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6. 19 진술)고 진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좁은 도로에서 교행하면서도 속도를 유지하였다. 이렇듯 사고 장갑차는 대열의 운행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았으며, 무리하게 곡예운전을 하였다.
이는 사고 장갑차 운전자가 브래들리 장갑차와 교행한 후에도 두 여중생을 치지 않고 중앙선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잘못 판단했거나 아니면 두 여중생이 알아서 피했을 것이라고 판단(6. 19 니노 진술)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고 직전 6인치 전방(6. 19 워커의 진술)의 빨간 상의를 입은 소녀를 발견하고 브레

이크를 밟았으나 2피트 더 가서 멈췄다는 관제병의 진술(6. 19 니노의 진술)은 오르막길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궤도차량의 제동거리가 2피트나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거짓으로, 사고 장갑차가 속도를 유지한 채 계속 운행하다가 두 여중생을 치고 지나간 후에 브레이크를 밟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정확한 사고 상황은 진상 규명의 핵심 부분으로, 당시 주한미군의 지휘체계상의 문제와 연동하여 앞으로 반드시 추가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7. 우리의 요구

1. 부시 대통령은 6월 11일 미국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두 여중생 압살 사건에 대해 사과하라!
2. 한국 법무부와 검찰 당국은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건 담당 검사 및 당시 의정부 지방 검찰청장 등 결제선 상에 있었던 법무부, 검찰청 간부들을 징계하라!
3. 미국 정부는 수사 기록 및 운전병과 관제병의 재판 기록을 전면 공개하고,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4. 미국 정부는 사고 당시 중대장 이상 지휘 책임자들을 기소, 처벌하라!
5. 주한미군의 범죄를 뿌리뽑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미소파를 전면 개정하라!

8. 향후 과제

1. 미국 정부 및 주한미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미군 수사 및 재판 기록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미군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적 검토를 거쳐 미국 현지에서의 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2. 위의 과제를 실현하고 두 여중생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기 위한 상설 기구를 결성한다.
3. 이상의 과정을 국민들이 동참하는 국민운동방식으로 전개해 나간다.

1) 이 글은 지난 6월 10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에 '수사기록상에 나타난 사건의 진상' 부분을 추가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은 것은 이에 대한 피의자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수사기록상에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운전병이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고,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다-으로 다루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은 앞으로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장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입증, 사고 장갑차 호송 대열과 맞은편에서 내려오던 브래들리 장갑차 호송 대열과의 교행을 비롯한 미군의 안전수칙 및 교리 위반과 지휘체계상의 책임,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군형법의 적용 등에 대해 보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10일, 여중생 사건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발표에 나선 고영대 연구위원이 '사고차량 운전병은 커브길을 돌때 12~4시 방향까지 시야확보가 가능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병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의 허구성>
사고 차량 운전병의 시야 사각지대
주한미군
(02. 6. 19)
▲ 주한미군이 발표한 사고 장갑차의 시야 사각지대는 12~2시 방향, 차량 전방 2.5~21.6m (한국군 1군단 헌병 수사과장이 의정부 지방 검찰청에 전화로 한 진술)

▲ 운전병의 시야가 제한되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음.

▲ 관제병은 30m 전방의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음.

한국 검찰
(02. 8. 5)
▲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약 15m 전방에서 발견하여 통신 외에 사고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

▲ 사고 지점이 굽은 오르막길이고 우측 갓길에 풀이 우거져 30m 전방에서 보기는 곤란하고 약 20m 전방에서 보는 것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한국 검찰
(02. 9. 3)
▲ 사고 장소가 우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여 오다가 도달하는 곳이므로 우회전을 하기 전이나 우회전을 한 이후라도 우측에 확보된 시야 즉, 12시 방향부터 04시 방향까지의 시야를 통해서 장갑차 진행 방향인 사고 지점에 여중생들이 보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또한 …

▲ 사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운전병이 우로굽이 도로를 돈 직후 사고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리는 최소 30m에서 최대 35m이고, 운전병의 사각지대인 약 우측 전방 2.5m에서 21.6m를 벗어난 지점에서 걷고 있던 피해 여중생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이 우측 주시 의무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측 통제는 전적으로 관제병에게 맡기고…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 장애가 있었다는 주장의 허구성>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의 통신 장애
주한미군
(02. 6. 19)
▲ 운전자에게 도로에 보행자가 있다고 경고하기 위해서 무전으로 호출을 했었다. 전차장은 운전자가 듣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차량 무전기를 통해서 '정지하라'고 다시 경고했다.

당시의 훈련으로 인해서 무전교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여전히 듣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전차장은 다시 차량의 인터컴을 이용해서 세 번째로 운전자에게 정지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운전자는 여전히 듣지 못했다.

한국 검찰
(02. 8. 5)
▲ 니노가 여중생들을 발견하고 내부 통신 마이크를 통해 좌측의 운전병에게 정지 지시하였으나 통신 장비의 잡음 등으로 인해 운전병이 이를 듣지 못한 것이 사고의 가장 주요한 원인.

CID 수사 자료 및
피의자
자술서
▲ 사고 부교장갑차가 사고 장소로 출발하기 30분 전에 그 통신장비를 수리하였고 그 후 “테스트를 해보니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02. 7. 27 한국 검찰에서의 통신정비병 듀란의 진술)

▲ 내가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자 지휘관(CO)이 TOC의 XO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나는 니노에게 지휘관의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린다고 말했고 니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언덕을 오르면서 나의 차선에 있는 버스와 터미네이터 트럭에 대해 말을 했다.”(02. 7. 2 워커의 진술)

▲ 두 여중생이 걷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보통은 엄지를 치켜세우거나 다른 신호를 보냈다. 워커는 그 전에, 상황보고 전에는 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02. 7. 2 니노의 진술)

▲ 나는 나의 머리를 돌려 그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았고, 그 때 나는 CVC와 엔진 소음 위로 (니노가) “오 마이 갓 스탑”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02. 7. 2 워커의 진술)

故 신효순, 심미선 추모 3주기- SOFA 개선, 얼마나 바뀌었을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고 유 경

한국 사회를 촛불의 물결로 뒤덮었던 미군장갑차에 의한 故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이후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이나 미군당국의 대처는 놀라울만큼 변화되고 있다.
단체에서 사건사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보면, 미군범죄를 당한 한국인들은 예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가해 미군에 대한 형사처벌을 주장하고 있고, 미군 당국은 범죄가 발생하면 여론의 동향을 살피며 가능한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빠른 수습으로 문제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2년 6월 사고가 발생하고 11월 미군 재판에 기소된 2명의 미군이 무죄라고 판결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였다. 살인미군 처벌, 불평등한 SOFA 개정 요구에 직면한 한미 당국은 SOFA 협정의 개정에는 미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운용개선에 합의하였다.
한미간에 합의된 SOFA 개선안 이행을 위해 'SOFA 운영개선 특별대책반'을 구성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으나 이후 SOFA가 얼마나 피해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가해미군들의 범죄를 처벌하며, 예방하여 왔는지 그 개선 성과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 실망스럽다.
SOFA 개선안 중 주목받았던 초동수사의 강화와 비공무사건 치료비와 장례비에 대한 사전지급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초동수사의 경우 한국경찰들은 여전히 가해미군에 대한 예비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찰청에서 SOFA 사건 처리지침이 나왔지만 일선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미군 사건은 SOFA 때문에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으로 예비수사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없는 경우 가해 미군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마련이다.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나 강조되어 왔지만 미군들에 대한 초동수사는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것은 지침이나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협정의 개정을 통한 법률적 강제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공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중 치료비와 장례비 등 급하게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전지급 제도의 경우, 일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피해자들에게 이런 제도를 안내해주지 않아 정작 필요한 피해자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사전지급을 신청한다고 해도 미군이 가해자임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병원비를 지불했으니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미군 측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전지급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겨우 2건에 불과하다. 그것도 모두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론화시킨 오산 음주뺑소니사건(2003.11), 신촌 흉기난동으로 인한 살인미수 사건(2004.5) 두 경우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제도 이행을 널리 알리지 않은 법무부의 잘못도 있지만, 사전지급 결정에 대한 권한이 미군당국에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폭행사건이나 교통사고에서 사건 목격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미군이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미군당국에서도 가해자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전지급 신청을 기각해 버린다. 또한 병원에서 퇴원하기 위해 돈을 빌려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도 이미 지불하였으니 돈이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기각하는 것도 이 제도가 과연 유의미한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미군당국이 사전지급신청을 받아들이느냐 기각하느냐의 기준은 피해자의 절박성보다는 언론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의구심을 떨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된 사건은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이제까지 단체에서 접수한 사건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미군당국의 모습이다. 이 제도도 개선이나 지침 수준이 아닌 법의 개정을 통해 제대로 홍보하고, 결정 권한도 미군당국만이 아닌 공정한 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두 여중생의 죽음으로 한미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SOFA라는 협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지 인식하게 되었고 한미관계의 개선과 협정의 개정을 촉구해왔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두 여중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희생이 더 따르기 전에 하루빨리 관계와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미국문제를 대할 때 '어쩔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아닌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승리의 생각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여중생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진>

3주기를 앞두고 다시 찾은 사고현장. 미2사단에서 세운 추모비 주변은 추모객들이 다녀간 흔적들로 가득합니다. 사고가 났던 자리는 어느새 인도가 생겼고, 도로는 말끔하게 확장됐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갈 소녀들은 이 세상에 없는 데 말이죠.

마을에 들어서자 미선이 아버님이 젖소 우리를 청소하고 계십니다. 카메라를 피하는 아버님 대신 젖소 두 마리가 맑은 눈을 깜빡이며 렌즈 속으로 들어옵니다.

마을 끝, 새 자리로 이사한 효순이네는 지금 파 농사로 분주합니다. 바쁜 농사일에 묻혀 아픔을 잊어가는 듯했지만 3주기가 다가올수록 먹먹해지는 가슴을 누를 길은 없어 보입니다. 자식을 가슴 깊이 묻고 이제는 추모비 속 작은 사진으로만 봐야하는 꿈같은 현실, 남은 이들에게 현실은 가혹한 고통입니다.

마을을 나서는데 들머리에 노란 꽃이 한가득 피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가던 그 해, 슬프도록 화사하게 피었던 바로 그 꽃들이...

글·사진 | 김현진

NPT 7차 평가회의 대응 - 뉴욕 일기

총무국장 박 석 분

4월 27일(수) 밤 9시, JFK공항
인천공항에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13시간 넘게 날아 JFK 공항에 도착하니 밤 9시. 어두운 밤만큼이나 무거운 한반도 정세를 짊어지고 온 느낌이었다. 혹시 입국 절차가 까다롭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기우였지만 양 손의 지문을 확인받아야만 했다. 이로써 미국에 있는 동안 매일같이 받아야 했던 '검색'이 시작되었다!

4월 28일(목) NPT ID 카드를 받아내다
한국에선 한창 새벽일 시간, 시차적응이 안되어 비몽사몽, 그냥 좀 더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우리를 유엔본부로 안내하기 위해 직장에 휴가계까지 낸 미주동포와의 약속이 있었다. 유엔 본부까지 매일 출퇴근을 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 그 분은 전철을 이용해서 유엔 본부까지 가는 방법을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뉴욕 전철은 비좁고, 더럽고, 시끄러웠다. 우리나라 전철은 여기 비하면 '겉만큼은' 황실이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역사 천정에서는 물이 새고, 벽의 페인트칠은 벗겨져 누덕누덕했다. 전선줄이 드러난 채 늘어져있기도 하고, 조명도 어두웠다. 출입구는 쇠창살로 되어 있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지하철을 벗어나 맨하탄 거리로 나오면 고개를 젖혀야만 꼭대기가 보일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그야말로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 넓게 쭉쭉 뻗은 거리에 정신없이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도시 전체에서 '윙-'하는 기계소리가 났다.
우리는 street와 avenue를 익히며 걸었다. 지하철 타는 건물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피곤이 온 몸을 덮쳐오건만, 정신을 바짝 차렸다. 유엔본부가 보이는 곳에 이르자 허드슨 강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강물을 보니 가슴이 좀 트였다.
유엔본부로 들어가려니 정문이 아니라 막사로 된 별도의 'visiter'용 출입구를 이용하란다. 유엔본부 문턱은 높다! 'secret'을 단 거구의 사나이들이 사나운 표정으로, 불친절하기 그지없는 태도로 우리를 훑어보는데, 정나미가 떨어졌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몸에 지닌 모든 것을 내놓고, 신발까지 벗어 검색대를 통과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고서야 유엔본부 안에 겨우 들어설 수 있었다.
유엔본부 로비는 관광객들과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구석에 앉은 NPT 담당 직원을 찾느라 우왕좌왕 했다. 그는 우리 이름과 소속 단체를 확인하며 "South Korea, SPARK"라고 한다. 이 때부터 그것은 우리의 또 하나의 이름이 되었다.
우리는 그가 내준 쪽지 한 장씩을 받아들고 다시 유엔본부를 나와 건너편 건물로 가서 유엔본부 출입용 'ID카드'를 만들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다. 갑자기 또 다른 'secret'가 변대표의 서류를 보고 큰 소리를 지른다. "누가 여기에 사인을 하라고 했냐?" 그가 정색을 하며 소리를 질러서 우리는 기겁을 했다. NGO 담당자가 수습에 나섰는데, 알고보니 그 작자가 뭔가 오해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화가 났지만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변대표는 속 좋게도 날더러 "사진

찍어야 하니까 웃으라"고 한다.
유엔본부에서의 첫 날, 우리는 다가올 날들의 고난(!)을 예감하며 그래도 웃으며 역사적인 'ID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했다.

4월 30일(토), 미주동포들과 함께 5·1 준비
이 날 아침, 우리 중 제일 건강한(?) 유홍 팀장은 변대표와 MD관련 토론회에 참가함으로써 '출근'을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비몽사몽 헤매고 있다가 워싱턴에서 온 NAKA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 오후 늦게야 자주연합 사무실로 나갔다.
김만식 워싱턴 NAKA 지부장과 허소영, 이나영 회원이 내일 있을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먼 길을 와 주었다. 자주연합 최관호 의장과 뉴욕 회원들이 가세하여 집회 준비에 나섰다.
내일 집회의 상과 순서를 알아보니 서울에서 미리 신청해놓고 온 연설은 이미 한국 대표로 재미한청련 연설이 확정되어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집회 주최측인 UFPJ(United For Peace and Justice)의 집행 간부에게 직접 확인하고 다시 요청했다.
임대표 연설 준비, 준비해 간 구호 펼침막에 대한 수정작업, 깃발과 피켓 제작, 깃대와 대오 앞에 들 펼침막 찾기.....자주연합 살림을 다 뒤지다시피 한 집회 준비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5월 1일(일), 'SPARK' 깃발 세우고
약속 장소로 나가기 위해 전철을 탔다. 아직도 머리가 빙빙 도는데, 긴장한 탓인지 다들 겉으로는 멀쩡하다. 10여 분을 가는데 옆에 앉은 유팀장이 "아, 밧데리를 안 가져왔네."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 "글쎄....한 두시간?" 자신이 없는 말투다. "숙소에 가서 가져와요." 매정한 내 대답. 유 팀장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더니 바로 일어선다.
보내놓고는 마음이 불안하다. 어제 집회 준비 때 한 이야기들을 잘 들었을까? 혹시 장소를 못 찾으면 어쩌지? 포기할 걸 괜히 보냈나? 차라리 내가 갈 걸 그랬나?
street과 avenue를 구분하지 못해 약속 장소를 찾느라 헤맸더니 20분이나 늦었다. 모두들 기다리고 있다. 워싱턴 NAKA 회원들과 최관호 의장과 자주연합 회원들, NAKA 이행우 의장님도 오셨다. 이제 집회 출발지점으로 이동해야 한다. 경찰들이 거리를 모두 봉쇄하고 비표를 확인하고서야 집회 출발지점으로 가게 해준다. 유 팀장은 여전히 오지 않는다. "움직여야 해요." 사람들이 재촉한다. 이동하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에서 단련된 사람이니까 찾아오겠지, 믿어보자.
우리는 전체 대오의 선두 부분, 국제조직 대표단 바로 뒤에 서기로 했다. "사진발을 잘 받아야 한다, 무조건 튀어야 한다"가 오늘 우리의 행동 지침이다. 서울에서 단련한 세월이 얼만데! 우리 뒤부터 미국을 위시한 각국 대표단이 대열을 지어 섰다. 대열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유 팀장이 나타났다! "이제 카메라맨 마인드를 확실히 가져야 해요." 내 반가운 마음은 잔소리로 변해 있었다.
우리 대열은 모두 11명, 모두 피켓을 앞뒤로 메고, 깃발을 들거나 북을 치거나 사진기를 들거나.....모두 1인 2역을 했다. 행진을 하면서 미국인 대열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었고 미국인 선동가는 아예 우리가 준비한 핸드마이크를 잡아들고, 우리가 준비한 구호를 선창했다. "NO War on North Korea!", "Hands off Korea!"를 미국인이 함께 외쳐댔다!
4만 여 명이 참가한 이 날 행진은 이번 NPT 7차 회의가 민간평화운동세력이 주도하는, 반부시반전운동의 장이 될 것을 예고했다. 평통사 대표단은, 당당하게 'SPARK' 깃발을 날리

며 센트럴 파크까지 행진했고, 센트럴 파크에서는 변대표가 인사말을, 임대표가 '기어이' 연설을 했다. 우리는 집회에 참가한 4천여 명의 전 세계의 평화활동가들에게 북에 대한 미국의 선제 핵공격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월 2일(월), 평통사, 대한민국 NGO 대표
본회의가 시작되는 날, ID카드를 가진 사람들만 이용하는 문을 통해, 그러나 역시 검색대를 거쳐 유엔본부에 들어갔다. 유색인종이면 더 심해지는 검색, 임대표는 이 날 심하게 검색을 당했다.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과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절충적인' 연설 후에 각 정부대표 기조연설이 진행되었다. 총회가 열리는 'General Assembly Hall'의 방청석은 4층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곳에는 NGO 당 1인의 대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비표가 없으면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었다. 평화네트워크는 일본 피스데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방청권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결국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NGO 대표가 된 'SPARK'는 '비표'를 변대표에게 드렸다.

5월 3일(화), 미국입장 대변한 한국정부대표의 기조연설
우리는 세계 각국 NGO들의 토론회를 참관하면서 국내 언론이 연일 '북핵문제'를 다루는 것과는 판이하게, 오히려 미국의 핵무기 확산 책임을 주되게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New Agenda 그룹과 협력하여 핵무기 국가들이 군축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결성한, 중도적인 Middle Powers Initiative(MPI)와 같은 기구조차도 미국이 2000년 6차 회의에서 합의한, 핵무기 철폐를 위한 13steps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벙커버스터와 같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비판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 날 천영우 외통부 정책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다. 당장이라도 유엔 한국대표부 건물로 달려가 따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NGO 행사를 지원하는 RCW(Reaching Critical Will)가 발행한 'News in Review'는 한국 정부대표의 기조연설에 대해 "실제적인 군축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고, 우리가 준비해 간, NPT를 훼손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게재하여 대비시켰다.

5월 4일(수), 5일(목), 6일(금)
정부대표회의는, 미국이 2000년 합의 이행을 점검하는 문제를 의제로 다룰 수 없다고 버팀으로써 공전을 거듭했다. 반면 이번 회의에 참가한 1,800여 명의 각국 NGO들은 왕성하고 활발한 행사를 벌여 NPT 체제가 핵무기 철폐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냈다.
우리는 숙소 인터넷선이 끊겨 노트북을 여행가방에 담아 유엔본부로 가져가 작업하고, 복도에 주저앉아 소책자 표지 구호를 고쳐가며 행사장에 배포하고, 피곤하면 소파나 빈 강당 바닥에 누워있기도 했다. 이럴 때면 조국의 분단 현실, 미국에 굴종적인 정부, 편견에 사로잡힌 한국 언론이 생각나고, 분노와 함께 비장감에 젖었다.
이 고난(?)의 시기에 한국 일간지 1면에 5월 1일 집회 사진이 실렸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활력을 넣어주었다.
6일, 대표단은 노듯돌 박혜정 씨의 안내로 'UFPJ', '전쟁반대연대', '녹색당' 등 미국 내 주요 단체들을 방문했다. 마침 녹색당이 9·11 테러 현장 옆에 위치해 있어 그 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5월 7일(토), 워싱턴, NAKA 간담회
유홍 팀장은 'Abolition 2000' 10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남기로 하고, 임·변대표와 나는 이행우 NAKA 의장의 차로 워싱턴 NAKA 회원들과의 간담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떠났다. NAKA 사무실에서 가진 간담회에는 신필영 선생님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교포들이 참석했다. 대표단의 방미 내용과 목적, 평통사 활동 소개 등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모두 평통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현했다. 대표단은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관한 펼침막을 선물로 증정했다.

5월 8일(일), Mother's Day
이 날은 미국에서도 'Mother's Day'로 지키는 날. 우리는 NAKA 사무총장 서혁교 씨 댁에서 묵었는데, 그의 부인, 나, 변대표, 세 사람의 mother를 위해 서혁교 씨가 하루 봉사에 나서주었다. 이행우 의장님까지 가세하여 우리 세 여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루를 얻었다!
우리는 백악관과 베트남, 한국전쟁 기념관을 둘러보았다. 두 전쟁기념관은 백악관 뒤편,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 사이에 마련되었는데, 특히 미군들의 유령같은 등신상을 잔뜩 세워놓은 한국 전쟁기념관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 푸르고 너른 잔디밭에서 한 고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북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찬 강의를 하고 있었다!

5월 9일(월), 미 의회의사당에 가다
이행우 의장님의 안내로 미국 의회 의사당으로 가 헨리 하이드 의원실과 대니스 헬핀 위원실에 들러 평화통일연구소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상원 외교관계위 프랭크 자누치 전문위원을 만나 부시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고, 예정보도 늦게 숙소에 돌아오니 내일 써야 할 동영상이 문제가 생겼단다. 노듯돌에서 빌린 프로젝터와 노트북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 부랴부랴 여기저기 알아보고, 겨우 노트북을 빌리고, 시험해보고, 또 해보고, 짐 챙기니 새벽 2시.....

5월 10일(화), 역사적인 유엔본부에서의 첫 워크샵
아침일찍 서둘러 유엔본부에 나갔는데 우리가 워크샵을 하게 되어있는 Conference Room E에 늘 있던 프로젝터 테이블이 없어졌다. 필수품인 멀티탭도 없고! 유엔은 역시 차별적이군! 벌써 9시 40분이야! 하는 수 없이 또 유팀장을 바라본다. 유팀장이 "멀티탭이라고 하면 알아들을랑가? 문방구에서 파나?" 하며 달려나간다.
첫 번째 워크샵은, 교포 1.5세 이현정 씨 덕분에 무난하게 진행되었다. 임대표가 밤새 고민해 만든 저울을 갖고 NPT의 불평등성을 말한 것이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평택 이야기를 하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져 참아내느라 혼이 났다. 말은 안 되고, 미국인들이 "어쨌든 북이 핵무기를 가진 건 문제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참 답답했다. 유학생 최성희 씨가 동영상과 그림, 사진이 너무 좋았다고 격려해주는 게 어찌나 고맙던지!
이 날 밤에, 반미연대집회와 연결되었다. 새벽 2시, 임대표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연설을 강행하여 "역시 연설체질"임을 과시했다. 변대표는 "보고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라며 서울 식구들에게 고단한 뉴욕 일정을 하소연(?) 했다.

5월 11일(수), NGO 전체회의 참관

NGO 전체회의가 있는 날,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유엔본부 앞에서 피켓팅을 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뭔가 더 해야 한다,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솟아났다.

이 날 NGO 전체회의에 참가하고나서야 이 회의가 이번 NPT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날 발표한 15개의 주제발표는 NGO들의 정성과 땀과 염원이 깃든 소중한 열매들이었다. 발표자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NPT 체제 위협을 우려하고 비판했다. 각국 정부 대표는 이들의 주제발표를 경청했으며,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두아르테 의장이 "이제 의제가 합의되었다"고 발표했을 만큼, 정부대표들은 이 회의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 날 회의에서 정욱식 대표는 피스데포의 일원으로, 일본인들과 공동으로 작성한 '동북아 비핵지대화' 주제를 발표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NPT에 관한 입장을 제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5월 12일(목), 직접 영어로 진행한 두번째 워크샵

첫 번째 워크샵에 대한 간략한 평가 끝에, 이 날 워크샵은 진행방식을 좀 바꾸기로 했다. 부족하지만 영어로 진행해보기로 한 것이다. 이행우 의장과 김용환 변호사 등 교포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첫 번 워크샵보다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이 날 워크샵은 NGO 전체회의 날 배포된 'News in Review'에 이 날 행사 홍보물이 실린 덕분에 미국, 영국, 독일, 이란, 러시아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각국 활동가들이 참가하여,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북 핵무기 보유 문제로부터 한반도 통일과 노무현 정부의 성격, 미국의 한반도 점령정책에 관한 것까지 이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폭넓었다. 한 미국인 활동가가 "미국 정부를 대신해서, 한국민에 가한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을 때의 심정은 형언하기 어려웠다.

5월 13일(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사진을 남기고

마지막 일정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관광(!)에 나섰다. 그 동안 유엔본부 앞을 지나는 지붕이 없는 2층 관광버스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대서양 쪽으로 나가보고 싶었는데, 알아보니 그 쪽으로 가려면 돈과 시간이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높은 빌딩에 올라 호연지기(?)나 하자고 했다.

이 마지막 일정은 미국에 와서 겪은 모든 불친절과 불평등을 압축해 놓은 '관광'이었다. 줄서지 않고 '특별히' direct로 보려면 30불, '보통'은 14불. '보통'을 선택한 우리는 마치 배급을 받는 포로들처럼 1시간이나 줄을 서고, 검색대를 통과하여 고압적이고 거친 직원들의 지시를 받으며 올라갔다. 직원들은 우리 사진을 일방적으로 찍고는 15불을 내라고 한다. 안 산다고 하니까 그들은 우리 사진을 벽에다 걸어놓았다. 빌딩 꼭대기에 오르니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뉴욕시 전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그 빌딩을 지은 노동자들의 기념사진에 더 오래 눈길이 머물렀다.

밤 11시. 평통사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가득 안고 JFK 공항을 출발한 우리는 대서양으로부터 새벽을 몰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니, 밤을 아침으로 바꾼 조국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유엔본부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NPT NGO ID 카드를 받아들고

평통사 깃발을 들고, 부시 정부의 대북전쟁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당당하게 맨하탄 거리를 행진하다.

센트럴 파크 집회에서 평통사 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는 변연식 대표

센트럴 파크 집회 마지막 연설을 한 임종철 대표. 임 대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9·11테러 현장인 무역센터 자리를 둘러보는 미국인들.
희생자 명단이 걸려있다.

한국전쟁기념관에 서 있는 미군 동상들

5월 10일, 유엔본부 안에서 열린 역사적인 워크샵 광경. 우리는 같은 주제의 워크샵을 5월 12일에도 열었다.

유엔본부 건너편, 랄프벤치 공원에서 피켓농성을 벌이다

NPT 7차 회의 대응

변 연 식 공동대표

가장 인상깊었던 일은?

무엇보다도 5월 1일 4만여명이 모인 반핵반전집회에 세계의 평화운동가들과 함께 어깨동무하고 행진한 게 기억에 남아요. 센트럴파크 공원에서 우리는 한국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라고 소개하고 짧은 연설을 하였는데, 생애에 한번 있을 까 말 까 한 소중한 순간이었죠. 연설 내용이 "북한이 또 다른 의미의 이라크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부시와 미국정부는 WMD(Words of Mass Dissention)대량살상 비난발언 중단하라. 대북 핵선제 공격정책을 먼저 중단하라"였는데 우리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보람이 컸죠. 연단에서 내려오니까 미주동포들이 다들 잘했다고 칭찬해주셨어요.

그날 뉴욕 시내 행진사진이 한겨레 신문, 동아일보 등 국내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렸는데, 그것도 커다란 성과를 냈다고 봐요. '우리는 미국의 전쟁과 점령을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들고 있었거든요. 통일뉴스에도 계속 실리고… 우리가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수있어 고마웠죠.

한국에서는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미국 입장만 앵무새처럼 '북핵' '북핵'하고 외치고 있는데, 막상 NPT 회의가 열린 유엔빌딩 안에서는 전부 미국의 핵이 가장 큰 문제라며 '미핵' '미핵' 군축 얘기해요. 어떻게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연기 내뿜으면서 다른 사람보고 금연하라고 하냐. 그게 주요 컨퍼런스의 주제였어요. 미국이 먼저 핵군축을 하라는 거죠.

개인적인 소감이 있다면?

거기는 비록 비정부회의였지만, 냉혹한 현실 외교의 공간이었어요. 어떻게든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알려내야 하는 게 우리의 과제였고, 대표단 네 사람의 능력껏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평범하게 보이는 중년의 한국여성이 미국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목표였고, 잘 한 거 같아요. 호호… 이 자리를 빌어 박석분 동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를 얼마나 잘해갔는지 몰라요. 영문 성명서와 지도, 비디오, 사진 자료 등등.

평택 농민들의 투쟁을 비디오로 설명할 때는 박석분 동지와 임대표께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이후 과제라면?

계속 국제연대 해왔는데, 일회성 방문과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락과 교류가 필요해요. 영어로 우리 내용을 알릴 수 있는 능력도 높여야 하고... 다음에는 젊은 후배들이 이런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고생하더라도 우리 예쁜 후배들과 함께 했다면 더욱 의미있었을 거에요.

임종철 공동대표

인상깊었던 점은?
이번 NPT재검토회의에 평통사로서는 1995년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하였습니다. 10년전과 달라진 점을 두 가지만 적어보면 국제적으로 NGO POWER가 매우 커졌다는 것과 우리 평통사의 실무력이 또한 매우 커져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이번 회의는 이전과는 달리 유엔본부 외곽이 아니라 본부건물 안에서 각종 회합이 진행되었고 정부대표 측과의 합동회합에서 “이제 NGO는 단지 세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대표들보다도 더 전문성이 있고 지속적인(거의 평생 동안) 핵무기 철폐운동을 하므로 앞으로 어떤 정부대표간 회의이건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만 한다”는 주장, “NGO 활동경비를 정부측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높아진 민간단체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통사의 실무준비는 기간이 짧아 부족한 점이 있었음에도 현지에서 이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 바로 그 대안을 마련해 신속히 진행시킨 점, 실시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홍보에 활용한 점, 현지 교포단체와 유기적으로 대처하고 앞으로 연대할 만한 단체와 개인들을 직접 만나는 등 앞으로의 국제연대의 교두보를 확보한 점 등이 높이 평가받을만하다 봅니다.

에피소드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처음이 아니면서도 막상 짧은 영어실력 때문에 우리가 유엔본부 안 회의실에서 직접 주최하는 워크샵 발표를 앞두고 느꼈던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발표 전날 밤 나는 잠을 못 이루고 날밤을 세우다가 젓가락, 1회용 버터통, 커텐에서 뽑은 실, 동전과 열쇠를 이용해서 작은 저울을 만들었죠. 발표 첫머리에 이를 시범하면서 내가 보는 NPT체제의 문제점을 설명하자 역시나 시청각 효과가 나타났어요. 부담감이 좋은 결과로 역전 된 것이죠. 하하

유 홍 국제연대국장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라면?
아마도 UN에서 독자적 워크샵을 개최한 것은 한국 시민사회단체 중 평통사가 최초일텐데, 긴장이 되기도 했고 발표 도중 임 대표님과 박 국장님은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한편 평택비디오 상영에 관한 장비 일체를 독자적으로 준비했는데, 준비과정을 보시면서 변 대표님 말씀, “이제 유엔에 전기만 들어오면 되는 거지?”

참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국제연대를 하려면 이런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꼈다고나 할까요? 특히 영어!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때는 적절한 농담까지 섞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아자!
두 번째로는 ‘국제연대를 지속하려면 영문 홈페이지가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외국 평화활동가에게 명함을 건넬 때마다 들었어요.
다음으로는 평통사가 가진 풍부한 투쟁 경험과 내용을 토대로 얼마든지 국제무대에서도 주목받는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평통사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 중의 하나로 하면 어떨까요?

에피소드가 있다면?
유엔에 있을 때 양면테이프를 사오라는 요청이 있어서, 처음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방구가 영어로 뭐지? 고민하다가 데스크에 가서는 ‘공책, 연필, 지우개를 파는 가게가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어쩌구 저쩌구 해서, ‘나는 처음으로 뉴욕에 왔습니다.’ 했더니 약도를 그려주더군요. 궁하면 통한다고, 영어 못한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후 이렇게 하자?
대표단의 일치된 의견이기도 한데, 앞으로 국제회의에 갈 때는 반드시 30대 활동가를 대표단에 포함시키자. 뭐, 굳은 일 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 시론 |

평택 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의 승리를 위해

미군문제팀장 유 영 재

눈물겨운 '노인 규찰대'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8시가 되면 촛불이 밝혀진다.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촛불행사가 벌써 300일이 다 되어 간다. 비바람 눈보라를 뚫고, 그 바쁜 농번기를 헤치면서 평택 주민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 것이다. 60~70대 노인들이 토지강제수용절차에 맞서 조사차량 밑에 드러눕기도 하고, 지팡이를 겸한 듯한 막대기를 들고서 '규찰'을 서는 모습은 너무도 절박하여 눈물겹기까지 하다.

땅이 비옥하여 특등과 1등급만 난다는 이름도 아름다운 황새울 들녘! 홍수와 가뭄이 없고 경지정리와 관개시설이 완비되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절대농지를 미군 기지와 골프장 만들기 위해 내준다고 한다.

지금 주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땅은 50여 년 전 미군에게 강제로 쫓겨난 뒤, 지게와 가래로 피땀 흘려 가꾼 땅이다. 그러는 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등기내주고 세금 받아낸 것 밖에 없다. 그런 정부가 이제 와서 농민들에게는 자식 같은 농토를 빼앗아 미군에게 내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 해·공군기지 이용, 신속기동군으로

미국이 용산과 미2사단을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K-55 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하여 신속기동능력과 정밀타격능력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대북 방어적 성격의 붙박이 군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어디든 공격할 수 있는 신속기동군을 만들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노리는 핵심적 목표는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미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을 선제공격할 수 있고, 잠재 적국인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이처럼 평택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택투쟁의 의의

첫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미군기지가 확장되어 평택이 대북 선제공격 기지가 되고, 중국 포위와 중국-대만 간 분쟁의 전초기지가 된다면 대상 국가들도 이를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북한은 평택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정거리 100km가 넘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고, 중국도 주한미군이 자국을 겨냥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평택미군기지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수행의 전진기지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 구사에 중대한 제동을 걺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투쟁이다.

둘째, 평택주민의 생존권과 공동체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농민에게 땅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어디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도 어려운 60~70대 노인들이다. 이들로부터 땅을 빼앗는 것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통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정부가 기지확장을 위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이간질하면서 주민 사이에 불신과 반목이 극에 달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주민이 상을 당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은 주민생존권 수호와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셋째,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신속기동군화(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대북 방어 역할을 한국군에 넘기고 있으며, 주한미군 구조를 'UEy-UEx-UA'로 변환시키고 있다. 또한 110억달러를 투자하여 주한미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고, 작전계획의 공격성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 한미양국은 각종 회의와 회담을 통하여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는 것은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의 기틀을 허무는 것이다. 우리가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한다면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는 물리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넷째, 반미자주화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투쟁이다.
지금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시기다. 이를 두고 미국과 사대매국세력 대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세력 사이에 대회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문제', '동북아 균형자론', '작전계획 5029' 문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미국이 주한미군의 평택 재배치를 성사시킨다면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 여건과 새로운 군사전략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면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 기반 마련도 좌절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중장기적 이익의 관철을 저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한미관계에도 중대한 지형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즉,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은 단순히 특정 기지의 확장을 막아내는 투쟁의 의미를 넘어서 한미관계의 일방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투쟁, 반미자주화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투쟁인 것이다.

평택투쟁 승리의 조건과 가능성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은 다음의 세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승리할 수 있다. 첫째, 압도적 다수의 주민들이 끝까지 토지수용을 거부할 때, 둘째, 평택범대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투

쟁대오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투쟁을 적극 전개할 때, 셋째, 평택시민을 비롯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할 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는가?

첫째, 일부 주민들이 정부의 협박과 분열공작에 동요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압도적 다수의 주민들이 10개월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촛불행사를 진행하면서 토지수용관련 우편물 수취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토지수용절차에 따르고 있는 주민들도 자신들이 살던 땅에서 그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들도 투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투쟁에 동참할 것이다. 이는 주민대책위와 범대위가 주민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기만 한다면 주민들이 끝까지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범대위 소속 단위들은 평택 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을 당면 투쟁의 중심고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비록 부족하기는 하지만 범대위 활동에 대한 결합력을 높여가고 있다. 범대위는 평택지킴이 10만의 목표를 달성하고, 7월 10일에는 10만 평택지킴이의 힘으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저지하는 위력적인 투쟁을 현지에서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 투쟁을 계기로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범대위는 더욱 완강하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옥한 농토를 짓뭉개 미군기지와 골프장을 만들고, 그로 인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면 이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는 이 투쟁이 국민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갖는 투쟁으로서 얼마든지 국민의 지지와 동참 속에 투쟁을 벌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압도적 다수의 주민이 강제 토지수용을 완강히 거부하고 범대위가 주민들과 결합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며 국민들이 이 투쟁을 지지하는 조건에서 정부가 경찰과 불도저를 동원하여 강제로 주민의 땅을 빼앗는 만용을 부리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사안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려있고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추진강도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이 투쟁은 매우 힘들고 격렬한 싸움이 될 것이다. 반면 2002년 매향리폭격장 폐쇄투쟁은 기존기지의 폐쇄를 요구하는 투쟁이었던 데 비해, 이 투쟁은 주민들의 삶 터를 지키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정부측으로서는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고 주민들의 투쟁 강도는 훨씬 강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반미투쟁동력이 2000년보다 성장하였고, 국민의 의식도 괄목할만하게 발전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이 투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이다.
평택투쟁 승리의 방도

첫째, 주민들이 똘똘 뭉쳐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끝까지 투쟁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대책위와 범대위 지도부가 투쟁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또한 주민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주민에 대한 정부의 분열 와해공작을 파탄내야 한다. 단체와 개인들은 주민 촛불행사 참가, 기지순례, 농활참가,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평택의 상황을 몸소 느끼고 주민과의 생활적 결합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평택미군기지확장을 반대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평택범대위로 힘을 모아 효과적이고 힘있는 실천을 벌여야 한다. 평택지킴이사업 등 단위별 실천을 적극 전개하며 범국민대회 및 문화제 등 범대위가 벌이는 각종 집회와 행사에 적극 참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비조직 또는 소규모 대오는 각종 풀뿌리 모임을 구성하여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특색있게 기지확장 저지투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여론을 장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택지킴이사업 등의 대중사업을 통하여 평택 미군지기확장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평택,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또한 대언론사업도 적극화하고 인터넷도 적극 활용하여 이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고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당면투쟁 과제

협의매수 저지투쟁, 주민투쟁의 관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면 협의매수가 진행된다.(6.1~8.31) 주민이 협의매수에 응하여 정부와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는 정부에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저지투쟁은 결정적으로 불리해지게 된다. 많은 주민들이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동력의 축소는 물론, 주민대책위도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많은 주민이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하는가 하는 점이 평택투쟁의 관건적인 문제인 만큼 협의매수저지투쟁은 평택기지확장저지투쟁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투쟁이다. 따라서 당면한 주민 핵심투쟁과제는 협의매수저지투쟁이다.

모이자! 7월 10일, 평택으로!
주민 생존권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우리 민족의 운명에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평통사를 비롯한 140여 단체가 모여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평택범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3월 5일 출범식 및 제1차범국민대회를 치렀다. 평택범대위는 '생명과 평화의 땅, 10만 평택지킴이 모집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7월 10일에는 수만 명 참가를 목표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한반도 전쟁반대! 710 평화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상 때부터 누구보다 앞장서 투쟁해 온 평통사는 여기에 총력 집중해야 할 것이다. 평택지킴이사업과 710대회에 적극 동참하여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투쟁을 국민적 투쟁으로 상승·발전시켜내는 데 평통사의 커다란 역할을 기대한다.

| 현장 |

무너져 내린 갈매기의 섬, 직도를 아십니까?

전북평통사 사무국장 조 광 수
('직도폭격장 폐쇄와 군산미군기지 확장저지'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

갈매기의 고향이었던, 지금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직도는 한미공군의 폭격훈련장으로 사용되기 전에는 해발 66m에 이르는 깎아지른 기암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수많은 갈매기들과 잡새들이 서식하는 아름다운 새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도 주변은 청정해역으로서 어자원이 풍부하여 인근 유인도들 뿐만 아니라 군산지역의 많은 어민들이 이곳에서 조업을 해왔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진행된 한미공군의 폭격훈련에 의해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도 밤낮으로 계속되는 폭격 훈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갈매기들과 기암절벽의 모습은 사라지고, 대신 쩍쩍 갈라진 바위와 자갈밭이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고 있으며 섬 곳곳에는 폭탄 파편과 훈련탄, 불발탄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져 있을 뿐입니다. 말그대로 직도는 '파괴'와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한 맺힌 억울함을 간직한 채 숨죽여온 주민들

97년과 99년에는 직도 서쪽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저인망어선 선원이 폭발물이 터져 피해를 당했고 2000년 2월에는 직도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형정호'의 선원이 불발탄이 터져 사망하는 사건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직도와 가까운 섬들인 말도, 방축도, 명도의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비행과 실전용 폭탄 훈련으로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어왔으며 특히 실전용 폭탄이 투하되는 경우 창문이 흔들리고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방안의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진동피해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은 직도주변에서 일체의 조업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생존권의 문제였습니다. 어민들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직도 주변에서 조업을 할 경우 훈련을 나온 전투기들이 위협비행을 하는가 하면 해경과 공군에서 순시선이나 헬기를 띠워 위협을 하며 조업을 막아 왔습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에 공포감을 느껴왔으며 조업 도중 겁에 질린 채 그물을 잘라버리고 도망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한미양국

지난 2001년 매향리 폭격장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당시 한·미 양국은 매향리 폭격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함께 했으며 2004년 2월 매향리 사격장 폐쇄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매향리 사격장 폐쇄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에 걸맞

은 대체 사격장을 물색하기 시작하였으며 군산 직도, 강원도 필승사격장이 거론되게 됩니다. 강원도 필승사격장은 태백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도 폭격장은 지난 30여 년간 한미공군이 계속 사용해 '터'를 닦아놨으며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상 민원제기 등 사회 문제화 될 가능성이 태백지역이나 다른 육지사격장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따라서 한국민들의 눈을 피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훈련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장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대체 폭격장을 애타게 목말라 했던 미군에게 직도는 탁월한 조건을 갖춘 훈련장이었습니다.
이에 한미양국은 지난 2004년 6월 한미간 군사임무전환 이행계획(IA) 수정 합의를 통해 결국 직도사격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합의하였고, 우리나라 최고안보회의인 NSC에서도 이를 기본방침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군산시민들을 우롱한 국방부 장관의 거짓말!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명백한 사실들을 숨긴 채 군산시민을 계속 우롱하고 기만해 왔습니다. 직도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군산시의회의 국방부 항의방문 이후 국방부는 지난 3월 30일 국방부장관 명의로 한통의 서신을 보내 왔습니다. 이 서신에서 국방부 장관은 “직도가 주한미군의 전용폭격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으며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국방부가 전북도민 모두가 한결같이 요구하는 직도폭격장 이전 전면 백지화에 대한 대답은 회피한 채 오히려 합의사실조차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은 직도이전계획을 반대해온 군산시민을 포함한 전북도민 전체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롱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국방부가 향후에도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일방적으로 직도이전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것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이에 대하여 군산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은 물론 한미당국이 일방적으로 맺은 직도 폭격장 이전을 위한 “한미군사임무전환 이행계획 수정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력증강의 시험대, 군산

매향리 국제 미군폭격장을 군산 직도로 이전하는 문제는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와 전력증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세기 미국의 신군사전략인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해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와 기타 분쟁 지역에 개입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전세계적 군사전략 재편 과정에서 군산은 중요한 한 지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을 21세기 미국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보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은 광주, 군산, 평택, 오산 등 '서해안 MD 벨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 명백히 중국을 겨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서해안 MD 벨트를 따라 오산·수원·군산에는 모두 48기(6개의 포대)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됐고, F-117 스텔스기 배치, F-15E 전폭기 20여대를 동원한 한반도 지형적응훈련, 인공위성으로 유도되는 JDAM(합동직격탄) 투하 등 첨단무기를 동원한 훈련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의 경량화를 대체할 최첨단 신무기들이 서해안 MD벨트의 군사기지에 속속 배치되는 가운데, 이 무기들이 한반도 지형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훈련장이 필요했고, 그 조건에 딱 들어맞는 곳이 바로 서해안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직도인 것입니다.

동북아 최대의 미 공군기지, 전쟁기지가 될 군산 미군기지

현재 국방부는 군산 미군기지 옆 하재마을 등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주지역을 미군의 공여지로 제공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 미군기지 측은 향후 스텔스기나 공격용 아파치 헬기 등이 배치될 것에 대비하여 주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군산 미군기지를 확장하고 내부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도된 것처럼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매립지의 1,000만평 정도를 패트리어트 부대 배치 등을 위한 부지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은 군산이 동북아지역 최대의 미 공군기지, 향후 군사작전수행을 위한 전쟁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그 누구도 결코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며 아름다운 땅, 군산이 미군의 전쟁기지로 전락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국은 군산을 자신의 군사작전수행을 위한 동북아지역의 전쟁기지로 만들어가려는 모든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돌들이 넓은 자갈밭을 이루고 있는 모습

| 인물 |

이수정 회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서울평통사 장 윤 지

한 사물을 놓고 느끼고 판단하는 코드가 다 다르듯, 사람 역시 그런 것 같다. 물론 보편적 객관성은 있지만 개인적 가치관 내지 성향에 따라 사물에 대한 중요도나 선·후차가 나뉜다. '이수정 회원'의 존재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은 예전 '통일벗' 역사모임에서다. 함께 모임을 했던 이형수 회원을 통해서 간간이 연애담을 듣기도 하고, 단체 활동 가운데 틈틈이 들었던 얘기들이 전부다. 한마디로 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빈약했기에 이번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혹 형식적 얘기만 나올까봐 조금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그에 대한 강한 기억은 작년 결혼식 즈음이다.
일, 사랑, 단체 활동 등 누구보다 왕성하게 그때그때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며 생활하는지라 시간이 늘 부족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서 예식의 전 과정을 보며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기울여 준비를 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마음 씀씀이가 여기저기 차고 넘쳤다. 불면증에 걸릴 정도로 결혼식 준비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썼다고 한다.

점심을 한참 넘긴 토요일 오후, 핸드폰이 울린다.
벌써 도착했나? 폰을 집어 들자 기계음 사이로 이수정 회원의 힘찬 목소리가 전해온다.
"언니, 여기 숙대 삼거리로 올라가는 길인데 ○○약국이 보이거든요. 어디에요?"
간략히 알려주자 금방 알아차린다. 예전 자통협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었던 탓이다.
사실 내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게 좀 미안했던 터라 통화를 끝내자마자 사무실 출입문을 열어놓고서 그들이 오길 잠시 기다렸다. 곧 두 사람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자, 손을 흔들며 반긴다. 정장 차림의 부부. 시어머니 지인 결혼식에 대신 갔다 오는 길이란다. 오랜만에 이형수 회원도 보고, 여하튼 인터뷰 덕분에 보고 싶었던 얼굴도 보고….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특별히 나쁜 건 없고, 좋은 점이 많아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친정에서는 무남독녀라 엄마한테 늘 어린애 취급만 받았는데…."
결혼 후 전반적으로 여유로워졌다는 그녀.
35살!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 평범하지만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수정 회원의 생활 단상들.

결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 형수(신랑)한테 제 고민을 편하게 얘기하는 편이며, 또 잘 들어줘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의의 핵심을 잘 잡아서 이야기해 줄 때, 고맙기도 하고, 한층 더 사랑이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거든요."
결혼 후보다는 오히려 연애 때 더 많이 싸웠다는 그들. 같이 생활을 하면서 형수는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하지만 전엔 그 사실을 서로 몰라서 의사소통이 순탄치 않았나보다. 서로 안 싸우는 편이며, 싸워도 그 자리에서 바로

푸는 스타일을 지향, 지금은 형수가 아프기 때문에 수정이 더 이해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중이다.
수정과 형수의 결혼을 확실하게 보여준 청첩장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1+1은 꼭 2가 아닌 보다 더 큰 그 무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른네 살 저희 동갑내기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많은 분들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04. 4. 24

일
현재 구몬 교사 일을 하고, 2000년 노조 발기인으로 구몬 교사 6년차.
일주일에 3일 화·수·목은 수업을 하고, 월·금 2일은 독산동 학습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활동을 한단다. 그래서 늘 귀가 시간이 밤 10시를 넘기기가 일쑤. 토요일은 집회 등 일정이 많고… 이런 생활이 현재는 둘 밖에 없으니깐 무리가 없지만 아이가 생긴다면 글쎄…. 그래서 아직 2세 계획은 보류 중…
이수정 회원이 노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조직국장직으로 서울 뿐 아니라 타 지역 선생님을 조직하고, 또한 미조직 부분을 개척하는 것이다. 작년엔 매 주말마다 울산에 내려가 100여 명을 조직했다고 하니 가히 그 노력과 정성이 어땠을지 놀랍기만 하다.
어찌 보면 힘들고 답답한 생활일 텐데도 거침없이 대답하는 그는 참 간단 명료, 유쾌 상쾌다. 더 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투명한 인간. 지금까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연유를 묻자
“아무것도 안하면 답답하고, 가슴이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전 변화에 아주 민감했던 것 같고, 적극적인 성격 탓이기도 하고. 하지만 조합 활동을 하면서 날카로운 면이 표출되기도…. 조직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형수와 생활 속 진보를 약속했다는 그. 그래서 늘 늦는 귀가 탓에 가사 일은 형수가 주로 한다며, 세심하고 꼼꼼한 성격이 아빠를 닮은 것 같다고 은근히 칭찬을 한다. “친구 같은 당신, 당신의 웃음이 좋아” 이 멘트는 형수의 수정에 대한 간접 사랑화법 같다.

평통사
작년에 평통사 분회 견우직녀 활동을 했던 그녀, 지금은 조합 일로 잠시 쉬고 있다.
“평통사 활동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노조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닌지….”
호탕한 웃음 속에 조직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아직도 여전하다.

얼마 전, 1박 2일 속초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서로 한결 좋아졌다고 한다. 여건이 된다면 형수랑 수정 둘의 바람은 제주도 여행 가는 거란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변화에 무디게 되고, 일상에 조금씩 동화되고 젖어들어도 서로 이해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우리의 길을 갈 수 없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그런 점에서 이수정 회원은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가 어디에서건 늘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모든 회원의 사랑을 담아서 전달해주고 싶다.

| 참가기 |

주일미군기지 건설 반대의 현장 헤노코를 방문하다

팽성 대추리 주민, 평통사 미군문제팀 부장 장 도 정

지난 5월 12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오키나와를 다녀왔다. 한·일 미군기지 반대투쟁의 연대를 위해서 오키나와 - 한국 민중연대가 초청해 준 덕분이다. 제주도는커녕 비행기 근처도 가보지도 못한 내가 오키나와라니… 정말 너무나 떨리고 설레었다..

5월 12일
오키나와 나하공항에 도착. '장도정 선생님 어서오세요'
오키나와 - 한국 민중연대 소속의 이즈미씨, 오무라씨, 토미야마씨, 요네다씨 등이 마중을 나왔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숙소는 이즈미씨댁이다..

5월 13일
카데나 공군기지와 후텐마 공군기지 그리고 헤노코.
아침식사를 마치고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를 둘러보기로 하였다.
먼저 지역의 83%가 미군기지라는 카데나쵸의 카데나 공군기지를 둘러보았다. 챠탄쵸를 지나갈 때는 도로 양 옆이 모두 미군기지(챠탄쵸의 67%)이고 심지어 챠탄읍정(읍사무소)은 미군기지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땅이 없어서 미군기지(CAMP LESTAR)안에 있었다.

카데나 공군기지 앞에는 기지를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자료실이 있다.
3층의 전망대에 서니 기지가 정말 넓고 훤히 보인다. 카데나쵸 중심부에 위치한 미군기지. 도심에 이렇게 기지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2층 자료실에는 기지에 있는 각종 비행기가 전시되어 있고, 4대의 모니터(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 기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오키나와의 역사와 미군기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영상을 상영하고 있었다.
전망대와 자료실을 둘러보는 동안 많은 오키나와 학생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견학을 하며 평화학습을 하고 있었다.
기지 옆에는 기지보다 2배나 넓은 탄약고가 있어 굉장히 위험했고, 카데나 공군기지 주변은 소음과 야간비행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야간 비행을 중단시키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기노완시에 있는 후텐마 미 해병대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
40년 넘게 존재하고 있는 미군 비행장, 40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주민들. 후텐마 비행장도 역시 기노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다. 후텐마 비행장은 지난 1995년 미군병사의 여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폐쇄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미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규탄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키나와 국제대학교로 향했다.
작년(2004년) 8월 13일 미해병대 CH53D형 헬기가 국제대학교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매달 13일 집회를 열고 있었고, 오늘이 9번째 집회였다. 사건 당일은 다행히 휴일이

라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건물 한편이 파손되어 있었고 주위의 나무가 불에 탔다.
국제대학교 학생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현장을 보존하여 미군기지의 심각성을 알려내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우리 일행은 오키나와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40여분 차량을 달려 헤노코에 도착했다. 농성장이 보이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 수심이 깊지 않고 너무나 맑아서 바다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는 처음 본다. 헤노코 주민의 도움으로 배를 타고 현장으로 갔다.
헤노코 앞 바다에는 4개의 망루가 설치되어 있다. 일본 방위청으로부터 고용된 하청업체 직원들의 바다에 대한 보링조사를 막기 위해 24시간 교대로 밤을 지새우며 투쟁하고 계셨다.
바다에서 망루에 매달려 투쟁하는 헤노코 주민들...그리고 활동가들...힘겹게 바다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가슴이 시려온다.

5월 14일
오키나와 - 한국에서 미군기지를 없애자!
오키나와는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는 헤노코. 농성천막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날은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아서 헤노코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평택 팽성 도두리 뜰에서 생산된 쌀을 가져가서 헤노코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남대문 시장에서 사가지고 간 김과 함께.
캠프 긴자 미군 보급기지 앞 집회는 흥겨웠다.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지를 따라 행진을 했다. “캠프 긴자 필요없다, 후텐마 기지 필요없다. 헤노코 신기지 건설 반대한다.” 행진을 하는 동안 오키나와의 민중가수 마요나카 신야씨의 노래가 계속 되었다.
헤노코 농성장 옆 모래사장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다. 그것은 미해병대 기지(캠프 슈와브)와의 경계선이다. 미군 측은 후텐마 비행장이 너무 위험해서 헤노코로 옮기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이고 또한 모든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한다.
헤노코 투쟁은 외롭지 않다. 처음에 헤노코에는 배가 2척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기지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배를 사고, 노 젓는 연습도 했다고 한다.

집회후에는 우라소에시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관에서 ‘5월 오키나와 행동’ 주최로 ‘한국, 평택 - 헤노코 - 후텐마 - 시모지지마’라는 제목의 보고대회가 진행되었다.
첫 순서로 평택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책위에서 제작한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미군재배치의 본질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범대위 활동, 주민들의 투쟁을 보고 했다. 모두들 행사가 만족스럽게 끝났다고 좋아했다.

5월 15일
2만 4천명이 11km의 후텐마 기지 철조망을 포위하다.
후텐마 기지 포위행동은 4년째을 맞이하고 있었다. 일본 본토를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참여한 인원은 2만 4천명. 참여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11km 의 후텐마 기지 철조망을 포위했

다. 함성을 지르고,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성공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휴식. 이렇게 3차례 반복을 하고 포위행동을 마쳤다.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고, 오키나와 타임즈에 평택의 내용과 사진이 실리기도 하였다.
올해의 핵심 내용은 후텐마기지를 철거하고 헤노코 신기지 건설을 막아내는 것이다. 각계각층이 하나가 되어 투쟁을 결의했다.

오키나와 방문에 도움을 주신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고유경 사무국장님과 오키나와 - 한국 민중연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투쟁 승리를 위한 평택주민 & 평통사 체육대회 >>>>

▲‘영차영차’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지난 6일, 구로동 영서중학교 운동장에서 울려퍼진 응원소리입니다. 해마다 평통사 재창립일인 ‘현충일’에 수도권지역 회원들이 체육대회를 엽니다. 올해는 특별히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팽성대책위’ 주민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의 의미가 더욱 빛났습니다.

▲체육대회 하이라이트는 단연 어린이 달리기였죠.

“엄마, 나 1등 먹었어요!!”

▼여성회원들을 위한 피구

| 기고 |

반환 미군기지 내 문화재 상흔만 남아

박신용철 시민의신문 기자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전세계 미군의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주한미군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기지를 통폐합하고 있다.
반환 미군공여지는 △LPP개정협정에 의한 반환 △용산기지협정에 따른 반환 △주한미군의 10대 임무 이양에 따른 반환 △일반 SOFA 과제(수시반환)에 따른 반환 등으로 분류된다.
반환 미군공여지는 환경관련특별양해각서와 이행합의서 등을 통해 환경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사고 발생 이후 처리내용만 담고 있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불법 주둔해 훼손하고 짓뭉개버린 문화유산에 대한 한미간의 합의조항이 전무하다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주둔지 어느 곳에 문화유산이 존재했고, 어떻게 훼손되어 사라졌는지조차 한국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이 가지고 있는 기초조사 자료에 의존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역사의 숨결이 배어있는 문화유산, 미군은 떠나면 그만이고 반환받은 뒤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흔적을 발견한다 해도 원형이 훼손되어 가치가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역사적 연관 고리를 찾기 어려워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반환받고 나서 미군에 의한 문화유산 훼손이 확인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이 미군공여지를 반환받기 전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LPP협정, 용산협정에 의해 반환되는 공여지는 그나마 존중받는 격이다.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계획수립 시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SOFA 과제(수시반환)로 반환되는 공여지에는 대한민국 주권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수시반환은 한미양측이 불필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곳을 합의하에 반환받거나 신규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방부조차 수시반환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절차상은 한미SOFA합동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미군의 처분만 기다리는 꼴이다. 당연히 마인드가 부재한 국방부가 문화유산을 고려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곳이 바로 파주시 봉서산에 위치한 봉서산성이다.
“백제시에 축조했는데 선조조에 중수하였다. 둘레가 2,905척이며 대로의 요충지로 우뚝 솟아 그에 상대할 만한 봉우리가 없다.”(「신증동국여지승람」)
미군 송신소가 있는 봉서산이 백제시대 축조된 성이었다는 기록은 「동국여지지」, 「대동지지」, 「조선보물고적자료」등의 문헌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육사박물관이 1994년 경기도 파주시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에도 봉서산성에 대해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 봉서산성은 봉서산의 9부능선상 굴곡을 따라 석재로 축조된 전형적인 산성으로 높이 3m, 길이 1천여m에 달했던 산성이다. 현재 원형대로 남아있는 곳은 없고 붕괴된 형태로 북서부 지대에 도합 1백여m정도와 동남부 지대 산성의 기단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부가 남아 있다.
봉서산성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한 것은 임진왜란때였다. 1593년 권율장군은 2천8백여명의 병사를 이끌고 행주산성에 주둔해 3만여명의 왜군을 격퇴시켰다. 행주산성의 지형을 최

대한 이용해 얻은 승리였지만 전면적인 공세나 장기전에는 취약했다. 이때 이전지로 선정된 곳이 바로 봉서산성(당시 명칭은 파주산성)이다.
왜군은 행주산성의 대패를 만회하려 했고 봉서산성으로 이동한 권율장군을 위시한 조선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왜군은 봉서산성까지 진격해 공격하려 했지만 주위에서 배회하다가 공격을 포기하고 말았다. 지형적으로 봉서산성 주위는 평야지대여서 산성을 공격하기 어려운 지형이었고 봉서산까지 접근했다고 하더라고 기암절벽 등으로 산세가 험하고 흙산으로 산을 타고 산성에 올라 공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백제시대 축조되어 임진왜란 때 조선군 군사전략요충지로 톡톡한 역할을 해낸 봉서산성은 1963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 따르면 원형대로 남아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미군이 문화유산을 깔고 앉았기 때문이다. 몇 차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단순한 AFKN 송신소가 아니었다. 미사일 4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AFKN 송신소는 미군방송 송출탑이지만 실제는 정보부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비밀이다.
국방부도 해당 지자체도 봉서산에 문화유산이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법적, 행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몰라라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문화유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수많은 역사의 현장이 미군에 의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아직 시간은 있다. LPP협정상 폐쇄시기와 반환시기 사이에는 평균 1년가량의 공백이 발생한다. 미군이 기지 반환을 위한 정리작업에 필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은 주한미군 측이 밝힌 것처럼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미군에게 공여지를 반환받은 후에는 훼손된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폐쇄된 기지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훼손책임이 발견되면 명백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찰리블락'이라 불리는 봉서산성에 대한 반환근거와 환경오염조사다. LPP협정에는 찰리블락이 반환기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방부와 환경부간에 진행된 '제12회 중앙 군·관 환경협의회'에서는 찰리블락이 반환대상으로 환경오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일반 SOFA 과제로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총 9개 반환 미군기지 중 6개 기지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없어 환경오염 정밀조사가 필요없으나 JSA, 찰리블락, 캠프 레드크라우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존재하여 환경오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일단 JSA는 LPP협정에 의해 반환되는 리버티 벨, 캠프 보니파스를 지칭하는 것이며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반환에는 합의했으나 반환시기는 합의되지 않은 곳이었다. 특히 찰리블락은 국방부가 밝히듯 단순한 AFKN 송신소라고 한다면 환경오염 정밀조사가 필요없다. 그러나 환경부도 찰리블락내에 어떤 환경오염원이 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일반 SOFA 과제로 반환되는 9개 기지 목록 공개도 한미합의사항이란 명분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찰리블락에 대한 환경오염 기초조사를 벌인 바 있다.
군사주권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안보가 세계적인 대세에서 문화주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미군공여지 상당수에 문화유산이 존재했다. 그것을 미군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몇십년 주둔동안 원형이 훼손되고 역사적 연관성을 파헤칠 고리들은 사라져갔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이제라도 미군공여지에 대한 전면적인 문화유산조사와 정부차원의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역사를 바로 잡는 길이며 미래세대에 올바른 문화유산을 남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평화군축상식|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

1.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비행기에 실린 레이더로 공중에서 적군의 군용항공기의 비행 활동을 탐지,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 통제하여 적군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사령탑' 구실을 하는 항공기이다.

공중에서 적국의 전투기를 탐색하기 때문에 당연히 원거리 탐색이 가능하며, 그만큼 재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력이다. 실제 1991년 걸프전 때만 해도 미군이 표적을 확인한 뒤 이를 파괴하는 데 걸린 시간은 24시간이었으나, 지난해 B-1B 폭격기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은신한 곳으로 추정되는 바그다드 외곽의 건물을 폭파하라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1분이었다.

국방부가 도입예정인 E-X의 작전 요구성능(ROC)은, 6시간 이상 체공 능력과 시속 300노트 이상의 최대속도, 2만6500피트 이상의 임무 고도 등이며 전자식 레이더와 반경 370km 탐지거리확보, 360도 탐지 범위를 갖춘 기종이다. 현재 이와 같은 요구성능을 충족시켜 실전에 배치된 것이 없을 만큼 최첨단 무기체계이다.

2.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도입사업 추진 현황

국방부는 군 작전 요구 성능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한 2조원 규모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을 지난 2월 2일 '획득·개발심의회의'를 통해 재추진키로 결정하였다. 12월까지 기종을 선정하여 2012년까지 4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E-X 사업에 미국 보잉사의 B-737과 이스라엘 엘타사의 G-550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국방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의 필요성' 주장은 허구다.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의 필요성으로 ▲한반도의 전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 구비 ▲방공조기경보능력 신장과 공격 편대군 공중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저고도 공중감시 영역 확장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안보환경에 맞지 않음은 물론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의 주장이다.

1)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이 애초 일반국민에게 정보전력 획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 국방부는 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민들도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도입되면 군의 정보 전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평통사가 국방부에 보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 질의'(2004.

4. 26)에 대한 답변에서 “적군 군용항공기의 비행 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정보·전자전 분야의 신호정보 및 영상정보 등은 타 무기체계를 통하여 획득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정보 획득을 위한 사업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의 필요성으로 ‘군사정보 획득’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군은 미국의 의존에서 탈피,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지난 91년부터 통신 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과 영상·정보 정찰기 도입사업인 금강사업을 통해 이미 정보 전력을 확보하였다.

통신전파는 백두산지역까지, 영상전파는 금강산지역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올해부터 북한군의 신호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감청시설을 백령도 등 지상에 설치하는 ‘향백’사업 이라는 신규 정보전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6-2007년경에는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2호’를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처럼 정보분야 전력투자로 우리 군은 이미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해 세밀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보 수집을 위해 추가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2) ‘한반도 전략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독자적인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 구비’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전략 환경의 변화’라는 것은 한반도 주변의 분쟁 발생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미일의 긴밀한 군사협력 체제 아래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허구에 불과하다.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되어 있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제전력에서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원거리 공중통제 능력을 갖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결국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여 질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방부의 주장은 결국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3) 우리군은 방공 조기경보전력을 이미 확보 하고 있다.
현재 공군은 지상 방공통제소를 오산과 대구에 보유하고 있다. 대구에 운용중인 지상 방공통제소는 최신예 방공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오산의 방공통제시스템도 2006년 경에는 최신식으로 완전히 탈바꿈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미 북에 대하여 충분한 방공 조기경보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은 불필요하다.

4)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은 미국의 군수산업체를 배불리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의 무기구매 압력과 이에 편

승한 군 관계자들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이다. 실제로 미국의 보잉사와 이스라엘 엘타사가 경쟁업체로 선정되었지만,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G-550가 군 요구성능에 미달하여 탈락했다. 이 때문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사업이 전면 재검토되게 되었고, 올 2월 초 '획득 개발심의회의'를 통해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보잉사와 이스라엘 두 업체가 재경합중이다. 이를 보고 군 안팎에서는 미국 보잉사 기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과 함께 이와 관련된 논란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2001년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보잉사의 F-15K가 선정되었던 우여곡절을 떠올려봄직하다.